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평가 리포트

2011. 3.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2 |
| III. 정치·사회동향 | 8 |
| IV. 국제신인도 | 11 |
| V. 종합의견 | 14 |

I. 일반개황

| | | | |
|------|--------------------------------------|-----------|-----------------|
| 면적 | 447천 km ² | G D P | 390억 달러 (2010년) |
| 인구 | 28.5백만 명 (2010년) | 1 인 당 GDP | 1,367달러 (2010년) |
| 정치체제 | 대통령중심제 | 통화단위 | Sum |
| 대외정책 | 대서방 우호관계 회복 중,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 관계 유지 | 환율(달러당) | 1,587.00 |

- 1991년 구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58조 m³), 상당량의 원유(확인매장량 6억 배럴), 금(매장량 세계 5위)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여 양호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1991년 독립 이후 장기집권 중인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득표율로 연임되었고, 2009년 12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친정부 정당들만 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당분간 공고한 1인 통치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악화되었던 미국, EU와의 관계는 미국의 지역안보전략,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일부 EU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e |
|------------|------|------|------|------|-------------------|
| 경제성장률 | 7.3 | 9.5 | 9.0 | 8.1 | 8.5 |
| 재정수지 / GDP | 3.8 | 2.7 | 1.5 | 0.2 | 0.3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1.4 | 11.9 | 13.7 | 10.6 | 16.0 |

자료: IMF, EIU.

□ 고도경제 성장세 유지

- 2010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주요 수출품목인 금, 면화,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의 8.1%보다 다소 높은 8.5%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견조한 경제성장세의 주요 요인은 대 러시아 가스 수출 확대 및 농업 분야의 생산성 증대로 분석되며, 국내 소비 심리는 2007~08년에 비해 감소한 해외근로자 송금 수입 등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으나 정부의 임금 인상 및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 노력이 내수를 지탱하고 있음.
 - 특히 경제성장세에 따라 활발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GDP 대비 국내 총투자 비율은 2006년 이후 24%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11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 무역대상국인 러시아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기본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통제를 통한 물가 상승 억제 노력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대에 머물렀음.
- 그러나 2010년에는 주요 곡물 수출국의 가뭄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경제성장에 따른 유동성 증가,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에 따라 15~20%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흑자 폭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수지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08년에 GDP 대비 1.5%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사회보장, 국방 및 치안 관련 비용 부담 증가로 GDP 대비 0.2%로 흑자 폭이 축소된 후 2010년에도 이와 유사한 0.3% 수준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수지가 소폭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1차 산업과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는 에너지, 금, 면화 등 1차 산업의 수출비중이 총수출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에 취약한 구조임. 2003년에는 금과 에너지가 각각 총수출의 32%, 14%를 차지했으나 2007년 금의 수출비중은 14%로 하락한 반면,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비중이 23%로 확대되었음.

- 2009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우크라이나(29.7%), 러시아(13.9%), 터키(7.5%), 카자흐스탄(7.3%) 순이며, 수입대상국은 러시아(23.7%), 중국(20.4%), 한국(13.1%), 독일(6.1%) 등임.
- 2008년 10월 EU의 제제 완화 조치를 계기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나 불투명한 폐쇄 경제체제로 인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교역비중이 높아 이 국가들의 경기변동에 따라 향후에도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나. 성장 잠재력

□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3위 규모의 천연가스(확인매장량 1.58조 m³, 세계 0.9%), 상당량의 원유(확인매장량 6억 배럴)와 금(매장량 세계 5위) 등의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은 2010년 연간 155억 m³의 우즈베키스탄산 천연가스를 유럽내 수요에 연동되는 변동가격에 수입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11년에는 2010년 수입량에 4.25억 m³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합의함(가격 조건은 1,000 m³당 300달러 수준으로 추정).
 - 인접국인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 대해 2011년 중 각각 1,000 m³당 223달러와 228달러에 2억 m³와 1.8억 m³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음.
-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문맹률이 낮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아 양질의 저임금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 수출시장을 모두 접하고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외국인투자환경은 미흡하나 FDI 유입실적은 증가 추세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개혁, 개방의지 부족과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CIS 국가 중 가장 부진한 국가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2006년 7억 달러, 2007년 10억 달러, 2008년 14억 달러, 2009년 25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음.
- 2010년 FDI 유입액은 24.3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20억 4천만 달러로 최대 규모이며, 교통인프라 분야에 1억 5천만 달러, 방직 분야에 1억 달러 등이 투자된 것으로 분석됨.

□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내 투자 유치 노력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12월 나보이(Navoi) 공항을 물류허브로 개발하고 이곳에 FIEZ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나보이 특구는 입지여건상 우즈베키스탄 중앙에 위치해 육상물류운송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나보이 공항과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공업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특구 입주기업에게 분양 등 토지소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임대만을 허용하고 있는 점,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이 300만 유로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임. 또한 기술인력 등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 외에도 FIEZ 관리 및 운영을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 국가 안보를 위해 FIEZ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도 정부 주도의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2011~15년 산업 발전 5개년 프로그램 추진으로 외자유치 확대 계획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9년 이후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 3월에 2009~14년 현대화 및 기술증진 프로그램에 이어 2010년 12월에는 2011~15년 산업 발전 5개년 프로그램을 발표했음.

- * 2011~15년 산업 발전 5개년 프로그램은 2009~14년 현대화 및 기술증진 프로그램을 대체함.
- 2011~15년 산업 발전 5개년 프로그램은 산업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 수출 잠재력 및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프로그램에 따라 2015년까지 산업부문에 300억 7,4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이 중 신규 건설 분야에 230억 5,000만 달러, 기존 생산기지 현대화 분야에 52억 4,200만 달러 및 신기술장비 구축에 17억 8,300만 달러가 투입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5년 우즈베키스탄 산업 구조는 2010년 산업생산의 38%를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63.2%까지 확대되고 관련 수출 비중도 51.1%에서 7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이 프로그램의 재원 조달 계획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의 68%인 204억 5,000만 달러를 외국인투자 및 국제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가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인 것으로 분석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e |
|----------------|-------|-------|--------|--------|-------------------|
| 경 상 수 지 | 2,927 | 4,326 | 4,050 | 3,545 | 6,783 |
| 경 상 수 지 / GDP | 17.2 | 19.4 | 14.5 | 10.8 | 17.4 |
| 상 품 수 지 | 1,774 | 1,691 | 1,021 | 1,712 | 4,920 |
| 수 출 | 5,615 | 8,029 | 10,298 | 10,735 | 12,950 |
| 수 입 | 3,841 | 6,338 | 9,277 | 9,023 | 8,030 |
| 외 환 보 유 액 | 4,459 | 7,413 | 10,150 | 9,000 | 9,800 |
| 총 외 채 잔 액 | 4,025 | 3,912 | 3,989 | 5,267 | 5,965 |
| 총 외 채 잔액 / GDP | 23.7 | 17.5 | 13.9 | 16.1 | 15.8 |
| D S R | 5.0 | 7.4 | 4.9 | 5.4 | 4.6 |

자료: IFS, EIU.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확대

- 우즈베키스탄의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천연가스, 금, 면화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상승과 러시아 경기회복세에 따른 해외 근로자의 송금 유입액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91.3% 증가한 68억 달러(GDP 대비 17.4%)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천연가스, 면화 가격 상승세 지속, 자동차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출 증가세 지속

- 우즈베키스탄의 상품수출은 2010년에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 지속에 따라 129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숨화 가치 하락세 지속

- 우즈베키스탄 숨화의 가치는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 2010년 말 현재 전년 대비 8.5% 하락했음.
- IMF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통화가치 절상을 권고했으나 통화 당국은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숨화의 가치 하락을 계속 용인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양호한 수준 유지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외채 규모는 2007~08년에 39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약 60억 달러

규모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15%대를 유지하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11년에도 총외채 규모가 70억 달러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경제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관리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DSR은 하락세 시현

- 2010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총수출 증가세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카리모프 장기집권 체제 지속

- 1991년 이후 대통령으로 집권 중인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이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의 득표율로 7년 임기의 대통령직 연임에 성공해 당분간 1인 독재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1995년 대선, 2000년 대선, 2002년 대통령 임기 연장(5년→7년)을 위한 국민투표 등이 심각한 부정선거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통치체제는 공고해졌으며, 가스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외화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금융개혁, 유연한 통화정책 도입, 외환 통제 및 관세 장벽 완화 등의 개혁 성과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12월 135석을 두고 실시된 총선에서 96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었고 당시 과반의 투표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었던 39개 선거구에서는 2010년 1월 10일 결선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53석,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Uzbekistan Milliy Tiklanish) 31석 등 친정부 정당이 압도적인 의석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통령이 73세의 고령이고 후계구도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그가 권좌에서 물러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임. 현재 대통령이 현 임기 종료 후 연임에 도전할지, 아니면 향후 특정 시점에 후계자를 지명할지는 불분명한 상태임.

2. 사회 안정

□ 철권통치로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있으나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잠재

- 카리모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주요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요직을 모두 그의 지지자들로 선임했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년간 정적들을 억압하고 국외로 축출해 그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우즈베키스탄은 폐쇄경제 체제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을 증가하며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고 있음.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약 25%는 극빈층에 속하는 등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3. 소요/사태

□ 전국적인 소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테러 발생위험이 상존

- 지난 20년간 지속된 카리모프 독재 체제는 주도적인 반대세력 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전국적인 차원의 소요 가능성은 거의 없음.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의 저항 움직임은 증가할 수 있겠으나 공권력에 의해 신속히 진압 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는 필요시 무력 동원도 불사할 것으로 보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된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세력, 소수민족, 종교단체 등에 대한 비인권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어 폭탄테러 등 사회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소요 사태가 우즈베키스탄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CIS역내 타국의 독재 체제가 무너질 경우 카리모프 독재 체제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국제관계

□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

- 2005년 안디잔 사태 이후 급속히 악화되었던 미국, EU 등 서방 국가와의 관계는 미국의 지역안보전략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자 대안을 찾는 EU 일부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점차 개선되고 있음. 특히 2008년 EU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모두 해제했으나, 서구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인권 탄압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를 촉구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4월 3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행 비군수물자의 우즈베키스탄 영토 통과를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했음.

□ 중국과의 관계는 강화되고 있으나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위축

- 중국은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2009년 12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관통하는 총 1,833km의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개통하는 등 꾸준한 자원외교의 결실을 보고 있음. 동 가스관 개통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러시아 이외의 주요 가스 수출선을 확보해 대 러시아 협상력이 강화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도입해 중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2008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에서 탈퇴하는 등 러시아와 다소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와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접국과의 국경 분쟁 지속

- 2010년 6월에 발생한 키르기즈 유혈 사태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일시적으로 국경을 폐쇄했으며 여전히 국경 획정 분쟁과 민족 분규가 지속되고 있어 키르기즈와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음.
-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인접국과 수도 및 에너지 공급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 세력의 활동반경이 우즈베키스탄 국내로까지 확대될 위험도 있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는 당분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정상상환 중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 증대와 해외근로자의 외화송금액 증가에 기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외채를 정상상환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했을 때 2010년 기준 GDP 대비 15% 수준의 총외채잔액은 우즈베키스탄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됨. 단기외채 비중은 5.2% 수준으로 낮아 단기간 내 외채상환 불능이나 리스케줄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비중 미미

- 2010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잔액은 단기 1.4억 달러, 중장기 7.5억 달러이며, 이 중 단기 4천만 달러(0.3%) 및 중장기 2천만 달러(0.03%)가 연체 중으로 연체금액의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며, 회수불능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국제시장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수출입은행 | D1 (2011. 3.) | D1 (2010. 3.) |
| OECD | 6 (2011. 1.) | 6 (2010. 1.) |

□ 국가신용등급은 낮은 수준 유지

- 우즈베키스탄은 2008년 1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 외채상환 부담 경감, 대통령 선거 종료에 따른 정치적인 리스크 감소, 수출상품 가격 호조 및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등으로 견조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종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 조정됨.
- OECD는 2008년에 평가한 6등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 및 Fitch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92년 1월 29일(북한과는 1992년 2월 7일)

□ 주요 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이상 '92), 항공협정, 문화협정(이상 '94), 이중과세방지협정('98), 세관협력협정('99), 형사사범공조조약('03), 범죄인인도조약('04), 사회보장협정('05)

□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 증가세 유지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4.3억 달러를 기록했음. 한편, 수입은 2008년 2.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2,198만 달러를 기록했음.

- 자동차부품 및 원동기, 펌프 등 투자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품 및 원부자재 수출이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로 천연섬유사, 면직물 및 농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음.

□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 확대 추세

-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는 1992년 수교 이래 1998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로 투자가 정체된 이후 2010년 말 누적 기준으로 175건, 5억 3,997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됨.
- 투자 초기 대부분을 차지하던 대우자동차와 갑을방적이 매각, 청산됨에 따라 투자가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양국 정상방문을 계기로 2005~08년 투자 건수 및 금액은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냈음.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중단 등 투자여건 악화로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가 크게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19건, 3,913만 달러를 투자하며 전년에 비해 투자실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2010년 말 누적 기준으로 제조업이 3억 6,306만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451만 달러,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3,686만 달러 순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및 섬유업체가 대부분임.

<표 4> 한·우즈베키스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 2008 | 2009 | 2010 | 주요품목 |
|-----|-------|-------|-------|---------------------|
| 수 출 | 1,123 | 1,150 | 1,439 | 자동차부품, 원동기, 펌프 |
| 수 입 | 263 | 47 | 22 | 천연섬유사, 면직물, 기타농산물 등 |
| 합 계 | 1,386 | 1,197 | 1,461 |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우즈베키스탄은 2006~08년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 금, 면화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라 상품,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며 대외유동성이 증가했으나,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세계 경기 침체로 2009년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음. 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천연가스 수출 호조 및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2010년에는 국내 투자 확대, 외환보유액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 등을 나타내며 점진적인 경기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음.
- 카리모프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체제 하에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중국과는 가스 수출 등을 매개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러시아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1차 산업과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국제 원자재 가격 등락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상황에 크게 연동되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또 부진한 경제개혁 성과, 더딘 민주화 과정, 고령의 카리모프 후계구도의 불확실성과 극빈층의 내재된 불만이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1~15년 산업 발전 5개년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향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책임조사역 허정옥 (☎02-3779-5708)

E-mail: johuh@koreaexim.go.kr